
第61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財務經濟委員會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3年3月19日(金) 午後2時

場所 財務經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企劃管理室所管業務에 대한 質疑
 2. 財務局所管業務에 關한 質疑
-

審査된 案件

1. 企劃管理室所管業務에 關한 質疑 ... 2面
 2. 財務局所管業務에 關한 質疑 ... 36面
-

(14時 10分 開議)

○委員長 朴尙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61回 臨時會 第1次 財務經濟委員會를 開議 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財務經濟委員會 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년들어 두 번째로 맞이하는 常任委員會이며 새 政府가 출범한 후 처음 열리는 會議입니다. 우리 社會는 各分野에 걸쳐 다양한 變化와 漸進的 改革을 試圖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議會는 물론 執行部에서도 우리 社

會에 만연해 있는 不正腐敗를 追放하는 데 앞장서고, 經濟의 再跳躍을 위한 國策이 全市民의 협조 하에서 實效性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議政活動과 地域活動을 통하여 習得한 知識과 經驗을 바탕으로 市民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바람직한 市政 運營은 어떠한지 하는지를 충분히 研究 檢討하여 이를 市政에 反映시킴으로써 市民의 便益 增進과 權利 伸張에 奇與하도록 힘쓸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企劃管理室所管業務에關한質疑

(14時 13分)

○委員長 朴尙東; 議事日程에 들어가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企劃管理室所管 業務에 關한 質疑를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質疑에 앞서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新任幹部 紹介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안녕하십니까?

저희들 서울市政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저희들, 특히 서울시 企劃管理室 業務에 관해서 평소 자상한 指導로 저희들 業務 發展에 指導를 해 주고 鞭撻을 해 주시는 財務經濟委員會 委員長님 이하 委員님께 진심으로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그간에 있어서 저희 서울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겪어야 할 過程들을 넘어서, 또 市長님도 바뀌시고 그간에 人事異動의 대폭적인 施行으로 저희 企劃管理室에서도 많은

變化가 있었습니다. 우선 그 變化된 幹部를 紹介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에 저희들 企劃管理室에서 함께 일을 해 주시던 前 金益洙 投資管理官은 産業經濟局長으로 榮轉을 하였고, 또 前 技術審査官인 洪鍾敏 局長은 下水局長으로 榮轉을 하셨습니다.

(幹部紹介:投資管理官 姜性煥, 統計擔當官 朴仁龍)

그리고 技術審査官은 洪鍾敏 局長이 榮轉을 하신 이후 아직 充員이 되지 아니해서 현재 缺員狀態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人事紹介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委員님들의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 企劃管理室所管 業務에 대하여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報告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는 委員 있음)

報告 듣고 하실래요?

(「왜냐하면 市政刷新企劃團 이것 한 것하고 600年事業, 얼마 안 되니까 이것……」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室長님께서 지난번에 市政刷新企劃團이 發足이 된 것을 우리 議會가 그 동안 開會되지 않았기 때문에 報告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市政刷新企劃團이 發足하게 된 動機하고 그 發足된 이후에 지금 企劃團의 役割에 대해서 좀 소상히 報告를 해 주시고, 또 우리 委員들이 그 內容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그 內容에 대한 質疑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만들어서 委員님 여러분께 配付해 드린 이 資料를 가지고 說明을 드리면서 未備事項은 補完說明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報告)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뒤에 실음)

.....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저희들 1次로 審議한 것이, 여기 資料에는 없습시다만 58件을 審議를 했습니다. 58件을 審議를 했었는데 그 中에서 보니까 이런 것 같으면 즉각 處理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예를 들자면 우리 企劃課에서 나온 資料가 이것은 稅政課에서 處理할 일이다 라고 해서 그 內容을 봤더니 즉각 處理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處理하도록 措置를 하고 나머지는 檢討를 해 나가는데, 이 58件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審議委員會를 召集을 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되습시다만 아시다시피 저희들 人事異動 등으로 써 아직 安定이 되지 못한 狀態이기 때문에, 審議委員會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實績으로써는 委員님들께 資料를 드리지 못한 事項입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報告繼續)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말씀을 드리면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委員님 여러분께서 市政刷新企劃團 構成과 運營에 대한 報告를 들으셨습니다. 그 內容과 더불어 企劃管理室 所管 業務에 대해서 質疑를 해 주시기 바라고, 企劃管理室長은 앉아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하는 委員 있음)

네, 崔明鎭 委員님.

○崔明鎭 委員; 市政刷新企劃團을 構成해서 運營하게 된 직접적인 動機가 있습니까? 追加할 것이 있다면, 지금 說明하신 것 외에.....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네, 動機는 지금 說明드린 대로 새로운 姿勢로 公務員의 奉仕라는 뜻 이외에 보다 더 市民의 立場에서 行政이 어떤 方向으로 흘러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더 強調를 했던 것입니다.

○崔明鎭 委員; 네, 방금 答辯하신 바대로 市民의 立場에서 市政을 刷新하고 市政을 이끌기 위해서는 市民의 진정한 民意를 反映할 수 있고, 代辯者이고 代表인 서울市議會 議員들의 請願이나 또는 建議 또는 指摘事項을 1次的으로 敬청해야 마땅하고 또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市政刷新企劃團, 이 企劃團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市 市政이 刷新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서울市議會 議員들이 서울市議會 議員님들이 地域의 民願이나 또 建議事項 또 改善해야 될 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또 公式的인 會議를 통해서 指摘하고 建議하고, 또 請願을 통해서 서울市에 促求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까지 몇 件이나, 請願中에서 몇 件이나 서울市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改善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市政刷新企劃團 이전의 狀況인 것 같습니다, 崔委員님 말씀하신 狀況은. 그래서 請願中에서 지금까지 改善이 된 事項이 몇 件이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資料를 한번 總 收給을 해서.....

○崔明鎭 委員;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請願이 서울市議會 議員들의 滿場一致로 同意를 받아서 通過되어서 서울市에 移牒했지만 서울市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請願이 대부분 9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市民의 진정한 代辯者이고 서울市民의 民意를 가장 잘 읽고 있는 서울市議員들의 指摘事項이나 建議事項이나 請願, 陳情도 제대로 處理 하나 못하는 주제에 또 무슨 刷新企劃團이라는 것을 構成해서 展示行政的이고 政權이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이런 쇼 的인 姿勢로 서울市가 또 임하고 있는지 本委員은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變化와 改革을 통한 진정한 文民時代라든지 또는 新韓國創造는 이런 機構나 組織을 새로 構成해서 소리를 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먼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 市政刷新企劃團이 없었기 때문에 民意가 反映 안 된 것이 아닙니다. 議員들이 갖다 尊民願조차도 處理를 안 해 주는데 어떻게 一般市民들이 民願을 接受해도 處理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市政刷新企劃團의 運營方向에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제일 먼저 그 동안에 民意를 가장 잘 읽고 있고 또 많이 接受 받고, 알고 있는 議員들한테 이런 것을 事前에 들어보고 또 그 方向도 決定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運營方向에도 나오질 않아요. 나는 그 귀절이 한 구절이라도 들어 있는가 전부 끝까지 몇 번 읽어 봤어요.

여기 있는 것이 전부가 形式에 지나지 않는, 展示 行政的

인 이런 着想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님, 所
信있게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여기 이 資料에 저희들이 1段階, 6페이지에 있습니다.
1段階에 接受民願分析 課題發掘 하는 데다가 저희들이 市議
會에 提出되어 있는 請願, 기타 建議事項들도 저희들은 다
받아서 檢討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얘기를 넣으려
다가 지금 崔委員님이 바로 指摘해 주신, 事前에 議會와의
協議가 없이 그것부터 했다 하는 질책을 받을 것 같아서 사
실은 여기에는 넣지 아니했습니다, 文章에는. 그러나 실질적
으로 저희들 市政開發擔當官이 저희들 議會事務處를 통해서
그러한 事項이 있으면, 넘겨 줄 수 있으면 넘겨달라 하는 協
議는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崔明鎭 委員; 곁들여서 時間을 節約하기 위해서 제가 중간
에 생략을 일단하고 한 가지만 여쭙고, 다른 委員님들이 質
疑할 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만 하렵니다.

서울市議員을 통해서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陳情件
이라든지 民願이라든지 請願이라든지 建議事項, 이런 것에
대한 處理方針이나 方向 또 지금까지 여러 議員님들이 이미
서울市에 提示하거나 建議했던 이런 民願事項에 대해서 최우
선적으로 檢討하고 事業이 관련되고 豫算이 관련되면 우선순
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方向에
관해서 室長님의 見解를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
는데.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네, 저희들은 항상 市議會와 議員님
에 대해서는 저희들 서울市民의 代表機關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議員님들께서 提示해 주시는 그 民願은 바로 市民의 종합된 意見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議員님들이 提示해 주시고 議會에서 넘겨주시는 事項이라면 누구보다도 먼저 處理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崔明鎭 委員; 室長님께서 그렇게 答辯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市政刷新企劃團이 본래 意圖했던 바 目的과 그 意圖를 전부 達成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존에 議員님들이 提示했던 民願이나 陳情이나 請願에 대한 調査, 그리고 앞으로 提示될 이런 類의 陳情件,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聚合하거나 議員님들한테 그런 件에 대한 建議書를 내 달라고 全議員님들한테 할 意向은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各局으로 하여금 公務員 자체적으로도 課題를 내놓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24時間 錄音이 되는 錄音電話까지도 設置해 두고 또 팩시미리도 항상 24時間 열어 놓았습니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議員님들이 내주시는 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받아서 언제라도 檢討를 하겠습니다.

○崔明鎭 委員; 그런데 지금 室長님께서 제가 質問을 간단하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길게 하도록 말씀을 하시는데, 錄音이 필요하고 이런 形式的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92年度에 서울시 市民2課라든지 接受되었던 民願이 약 3,000件 된 것을 제가 題目을 전부 봤어요. 檢討해 보고 그 중에서 일부는 答辯까지, 陳情件 原本하고 答辯 같은 것도 전부 檢討를 해 봤는데 대개 答辯이 어떻게 나왔느냐, 陳情, 똑같은 件에 대해서 陳情이 두 번 세 번이 들어가야

答辯이 나왔는데 答辯이 굉장히 責任없는 答辯들이 많이 있었어요. 錄音이 안 되어서 그런게 아납니다. 形式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소리가 나게 어떤 展示行政的인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진정으로 公務員들이 市民을 代表하는 代辯者들의 意思도 100% 존중해야 되지만 이런 陳情件이 들어오면 진실로 誠心誠意껏 處理해야 되겠다, 딴 데 가봐라, 내 所管 아니다, 이런 식으로 處理하지 않도록 그런 精神的인 姿勢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全潤枸 委員님.

○全潤枸 委員; 全潤枸 委員입니다.

지금 崔明鎭 委員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다가 두 가지만 더 追加로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崔明鎭 委員이 얘기한 內容과 조금 같은 맥락인데, 市政刷新企劃團이 이렇게 構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活力을 넣어서 일을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것이, 나중에 龍頭蛇尾가 되어서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形式만 이렇게 갖추었다는 것이 問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計劃을 했으면 이것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구냐 하는 內容이 나와야 되는데 1次的으로 우리 市議員 132名이 알고 있는 것이 제일 많을 거예요, 우선. 그러니까 市議員들에게 이러한 內容을 알려서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法令이나 뭐나, 즉 改編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받아요. 그것이 아마 제일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市民들이 이러한 內容을 지금 모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것 弘報한 일

있습니까? 新聞에 보면 어디 한 2·3段 조그맣게 하나 내놓은 것이 있다고. 난 아직 新聞에 그것밖에 본 일이 없어요.

그래 놓고 企劃團 만들어서 요란하게 한다 이러한 식으로 하는데, 나중에 가서 이것 한 것도 없고 또 改廢된 것도 없고 法습 다시 만들고 市民이 해 달라고 하는 것 하나도 안했다, 이러한 경우가 나오면 이것 또 여기서 問責이 아마 크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시고..... 그럼 그 中에서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번 물어보겠어요.

오늘 아침에 라디오放送에서 보니까 모범택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評을 나쁘게 하고 있습니다. 3,000원을 받으니까 市民들이 타지를 얹어요. 그 뭐 급한 사람만 다소 타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도 周邊에 한 번 나가 보세요. 지금 時間에 아마 朝鮮日報 앞에 나가보면 모범택시 20대 죽 서 있을 거예요. 交通에 도로 妨害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4,000대가 運行이 된다는데 금년 年內로 서울市에서 1만 2,000대로 擴張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1만 2,000대로 금년에 아마 增車를 시킬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4,000대 마저도 지금 市內에 전부, 곳곳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형편인데 1만 2,000대를 市內에, 전부 길에다 깔아 놓았을 적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번 생각해 본 일 있습니까? 이거 뭐 企劃管理室 所管은 아니지만 이런 行政을 하고 있으니 市民들한테는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줘야 될 거예요.

그 뿐만 아니라 料금이 왜 900원짜리하고, 3,000원짜리가 갑자기 나타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3,000원짜리 타겠어

요? 金浦空港에서 워커힐까지 가는 데 3만 5,000원이래요. 3萬 5,000원은 고사하고 왜 그렇게 900원짜리하고 3,000원 짜리 하고를 만들어 와서 시내 교통소통만 안 되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오늘 放送의 要旨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게 아마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한 번 分析을 해 봐야 될 거예요. 이런 것 등 한 번 자체적으로 생각을 좀 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市民들한테 듣고 또 市議員들한테 들어서 이 內容이 뭐다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되지, 이것만 만들어서 市廳 자체에서만 하려고 하면 나올 것 하나 없어요. 왜, 웬만한 것은 골치 아프니까 안해요, 안해. 뭐 하려고 합니까, 이것? 이러한 것 勘案해서 제대로 하려면 하고 안하려면 처음부터 이거 아주 덮고 말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市議員들에게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낼 수 있는 資料는 다 내 보라, 우리가 檢討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꾸겠다 하는 것 그것 하나, 그렇게 市民에게 弘報해서 어떠한 資料를 받아서 市民들이 要求하는 것을 해 주겠다 하는 생각, 그 意志, 두 가지를 가지고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네, 지금 指摘해 주신 事項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그 方向으로 推進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說明하신 事項입니다만 간단하게 解明 兼 말씀을 드리면 모범택시는 택시 본래의 機能을 回復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어서 급할 때 혹은 高級 交通手段으로 活用될 수 있는 方向으로 創案이 되어서 運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2,000대로까지 늘리겠다 하는 것은 長期計劃의 一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00여 대가 運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지금 소위 空車率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增車는 이 線에서 停止하고 狀況을 봐 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全潤杓 委員; 아, 室長, 그렇게 答辯하지 마세요. 室長 마음대로 4,000대로써 마무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지금 여기서 答辯합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마무리가 아니고 空車率이 많은 것으로.....

○全潤杓 委員;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이왕 나왔으니까 택시 관계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이게 大衆交通입니까, 高級交通입니까? 뭘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현재 택시는 당초에는 高級 交通手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서울市の 交通, 소위 말하면 종래의 택시는 이것이 大衆交通手段化 되었던 것을, 이것을 이제 택시 본래의 機能인 高級手段 내지는 소위 緊要한 택시 利用者의 便宜度를 增進하기 위한 施策입니다.

○朴別根 委員; 室長님, 택시에 대해서 補充質疑를 하겠습니까.

觀光택시가 있고 一般택시가 있고 模範택시가 있고 個人택시가 있고, 우리 나라에 택시 種類가 몇 個입니까? 그 숫자도.....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제가.....

○朴別根 委員; 이것 보세요, 室長님.

觀光택시를 타면, 호텔 앞이고 道路邊에 대 있습니다, 婦女子들이 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市民을 갖다가 狹窄한 商術로 속이기 위해서 觀光택시라는 것 안 써 있습니다. 英

語로 콜택시라고 써 있어. 콜택시도 없어졌어요. 그러고서 사람이 타면, 타고나서는 미터도 있는데 미터도 안 꺾고 자기네 마음대로 3萬원을 달라 2萬원을 달라 하는 이런 行爲, 이런 택시 種類를 놔두고 거기에다 다시 또 模範택시를 내 보낸다는 것은 일만 벌려 놓았지 整理整頓이 안 된 서울市의 行政이다 이거예요.

○全潤杓 委員; 아니, 가만있어요, 朴委員. 그러니까 市政刷新企劃團을 만들어서 運營하면서 그런 것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資料만 提示해 주면 앞으로 잘 하리라고 믿는데, 만약에 이게 잘못됐을 적에는 우리 財務經濟委員會에서 먼저 또 企劃管理室長을 한 번 두들기는 길밖에 없으니까.....

○朴別根 委員; 企劃室長이 뭐.....

○全潤杓 委員; 아니, 우선 團長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도록 우리는 促求만 하는 거예요.

○朴別根 委員; 지금 말이지요. 아까 崔明鎭 委員이 한 質疑에 상당한 同調를 갖고 있습니다. 長官이 바뀌든, 次官이 바뀌든, 市長이 바뀌든, 하나의 龍頭蛇尾格으로다가, 죄다 자기 얼굴을 내세우는 行政을 갖고 있지 정말 國家와 國民과 市民을 위한 하나의 行政을 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그래요. 서울市議會 議員이 있는데 다시 市政刷新企劃團이라는 것이 생긴 理由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市民을 위해서 行政에 충실해야 되고 時間을 금과 같이 쪼개어 써야 될 분들인데 다시 그것을 만들어서 그 行政을 다시 보고, 그러면 서울市 市議員은 됩니까? 서울市民 1,150萬이 뽑은 서울市民들의 議會를 갖다가 市議會를 써먹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다 놔두고 당신

네들이 또 그것을 만들어서 한다, 그것은 言語道斷입니다. 왜, 그런 것이 있다면 서울시 議員들에게 이런 것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地域社會 또는 어느 곳에든지 行政刷新이라든가 法規라든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請願을 해서 저희들한테 要請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고치겠습니다, 또 이것도 서울시 議員들이 審議해서 서울시로 다 올려 주십시오, 이것이 타당성 있는 얘기지 이것을 당신네 들끼리 또 만들어서 당신네들이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것이 그 行政이지 뭐예요, 다 保身行政. 아시겠소, 保身行政이 뭔지? 一般 市民은, 돈 많은 사람들은 쇠고기, 돼지고기, 개구리, 올챙이면 올챙이까지 먹고 지렁이까지 먹어서 補身하지만 公務員 保身은 뭐냐, 그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체면 세우고 올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이 公務員 保身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다 여담이고, 그러한 行政은 가급적이면 피하면 좋겠고, 서울시 議員이 있는데 당신이 企劃團을 다시 만드는 것보다는 서울시議會에다 委任을 하시면 우리로서는 더 만족하고 더 잘 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가능한 한 質疑는 企劃管理室 所管 業務에 관한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速記錄에 記錄이 다 되니까 되도록이면 여담은 좀 피하시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委員長님!」 하는 委員 있음)

말씀하세요.

○金炯奎 委員; 金炯奎 委員입니다.

앞서 많은 委員께서 좋은 指摘을 했습니다. 거기에 좀더 添言을 하자면, 서울시長 李元鐘 市長이 93年 3月 8일에

任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市政刷新企劃團은 3月 10日 아 주 순발력있게 서울市政을 잘 아는 市長이 이렇게 企劃團까지 編成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더구나 市政刷新企劃團 團長이 企劃管理室長이다 하는 그 立場에서 그 意味를 確固不動하게 自省하는 意味의 實踐力을 가지겠다고 하는 意志表現이 되는 것인지, 李元鐘 서울市長의 순발력 있는, 市政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決斷力인지, 또한 서울市長이 全國의 市·道知事가 改革과 變化의 側面에서, 文民政府에서 전부 辭退하는 그런 立場에서 후발적으로 選任된 市長이라고 하는 그런 立場에서 이런 순발력을 발휘한 것인지 本委員은 더욱 더 지켜 볼 따름입니다.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市政刷新企劃團을 순발력 있게 發足시킨 李元鐘 서울市長의 첫 작품인 이번 人事發令에 대한 問題를 企劃管理室長으로서 아는 대로 몇 가지 소상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人事發令에서 功勞研修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公務員法上에 名譽退職에 관련시켜서 研修라는 名目を 붙여서 社會에 適應하는 過程을 아마 功勞研修過程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財務經濟委員會 委員뿐만 아니라 아마 서울市議員들 대부분은 農水産物都賣市場 金永根 社長이 辭任을 하고 서울市議會 申星浩 事務處長이 社長으로 任命되었습니다. 이런가 하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社長이 바로 新政府의 改革과 變化에 맞춰서 그런 데 適任한 人物이 아니라고 해서 大邱市長職을 그만 두게 된 그 분이 바로 서울市の 投資 關聯機關의 機關長으로서 任命

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관계를 봤을 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理事長인 金永根 社長께서는 정말 赴任初부터 우리 財務經濟委員會와 같이 전체 社內的 運營과 그 모든 現況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간에 많이 改善했었습니다. 그래서 赤字를 黑字로 돌리고 이와 같은 功勞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분에게 過失이 있는지 與否, 또 서울시 投資機關인 施設管理公團 理事長이 서울시와 전혀 관계가 없는 大邱市長職에 있던 사람이 任命 됐다는 사실, 내가 생각한다면.....

○委員長 朴尙東; 都市開發公社지요.

○金炯奎 委員; 都市開發公社, 내가 생각하기는 그야말로 서울시에서 한 家族的인 立場에서, 좀더 論功行賞的인 立場에서 생각할 때 功勞研修職으로 물러난 그 사람들을 오히려 그러한 投資關聯機關에 任命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都市開發公社 前職 大邱市長 任命에 따르는 서울시 發수에 대한 그 見解를 企劃管理室長은 소상하게, 명쾌하게, 改革과 變化의 時代에 알맞는지 與否 등등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서울시의 22個 區廳 산하에 500餘個의 洞事務所에 洞長이 있습니다. 지난 第59回 臨時會, 第60回 臨時會 常任委員會에서도 누차 言及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企劃管理室長께서는 洞長의 再任命關係 問題가 잘 檢討를 해서 57%에 상당하는 舊民政黨 指導長 出身, 管理長 出身, 警察 出身, 豫備軍 出身, 이런 사람으로서 任命이 되어서 그 任期가 滿了되는 時點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委員 立場에서는 되도록이면 서울시의 下位職 公務員의 人事 積滯 解消 問題나 또 洞事務所의

洞 行政이라고 하는 地方行政의 執行問題나 또 洞民과 融合할 수 있는 그런 問題나 이런 것을 勘案해서 우리 서울시 公務員으로서 名譽退職에 준하는 사람이나 또는 희망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으로서 再任用을 하지 말고 交替해서 任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室長께서는 檢討하고 그렇게 申請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한 進行狀況하고, 마침 새로 文民政府가 탄생함으로 인해서 地域의 行政이 適合하지 못하다고 하는 과거의 그런 權威的인 立場에서 特定 政黨을 偏愛하는 그런 人事, 또 부적합한 人事,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新規 任用되는 그 問題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 基準과 方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과감히 文民政府時代에 맞춰서 再任用이 되지 않고 우리 一線 洞 行政에 있는 우리 下位職 公務員으로서 任命하는 것이 可하다고 생각하는데 企劃管理室長의 見解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0分 停會하고 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그냥 答辯하고 하지요?

○委員長 朴尙東; 答辯 바로 하실 수 있겠어요?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네.

○委員長 朴尙東; 그럼 한 10分 停會하고 하지요?

(「그냥 하지요」 하는 委員 있음)

그럼 答辯하십시오. 答辯 듣고 停會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역시 저희 서울시 發展을 위해서 여러 가지 多방면으로 걱정을 해 주시는 委員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저희들 人事發令에 있어서 都賣市場 金永根 社長이 辭退를 하게 된 것은 業務上의 過失이나 이것이 問題가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市에 여러 가지 積滯되어 있는 後進에게 보다 나은 길과 業務의 能率向上 등을 위해서 本人이 辭意를 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都市開發公社 社長으로 大邱市長을 왜 就任하도록 했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大邱市는 서울市와 같은, 다시 말하면 直轄市가 다섯 個가 있습니다만 大邱市長이 그 中에서도 가장 都市行政 中에서 建設行政의 能力이 認定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都市開發公社에서 하고 있는 團地, 宅地의 造成이나 혹은 建物の 新築 등은 보다 더 行政의 有機性和 都市開發에 있어서의 效率性を 생각해서 우리 市長이 大邱市長을 초빙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洞長問題 말씀드리겠습니다.

洞長이 500餘洞 中에서 任期 5년에 해당되는 것이 人員이, 날짜로 보면 대략 5月末로 알고 있고, 洞長의 數는 대략한 390餘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市에서는 再任用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本人의 意思에 따르기로 하고 다만, 再任用 與否 決定은 지금 基準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再任用을 바라느냐 안 바라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內務局에서 이것을 申請을 받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것 申請이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그 基準과 그에 대한 再任用 與否에 대해서는 4月中으로 決定을 해서 行政의 公백이 생기지 아

니하도록 해 나갈 方向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下位職이 가급적이면 洞長으로 進出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問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아시다시피 자리가 빌 때에 최선을 다 해 왔습시다만 앞으로 이와 같은 狀況으로 일을 해 나갈 것이며, 옛날, 다시 말해서 5年의 任期가 있기 前과 任期가 생긴 이후에는 다소 저희들 6級 公務員에서 年齡이 좀 많은 분들은 그런 것은 없습시다만 젊은층에서는 그 쪽으로 進出하는 것을 상당히 망설이는 職員도 있다라는 점을 理解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洞長 任用に 대해서는 委員님께서 指摘하신 대로 저희들 下位職의 士氣 또한 市民을 위한 奉仕, 兩次元에서 衡平性있게 運營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金炯奎 委員; 저, 補充해서 質疑하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 社長 韓明煥氏가 大邱直轄市長으로 계셨는데, 大邱直轄市가 大韓民國의 模範된 市長이다, 市政을 잘 했다, 이러한 점을 李元鐘 市長이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초빙했다, 都市開發公社가 서울特別市 投資機關입니다.

그래 功勞研修로 나가는 鄭永燮 江南區廳長은 서울시에 그렇게 都市開發 할 能力이 없는 분입니까? 또 우리 裴炳昊 松坡區廳長이 功勞研修를 꼭 해야만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이런 功勞研修 하신 이 분은 오히려 大邱市에 몸 담았던 그 사람보다는 서울시 都市開發 行政에 더 밝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다면 서울시민들의 稅金에 의해서 投資한 都市開發公社 社長을 초빙을 해서 市政開發研究院에 두어서 研究를 시켜야지, 지금 斷乎하게 우리 室長께서 模範된 市政을 했기 때문에 초빙을 했다 하는 그 얘기가 바로 李元鐘 市長의 마음입니까? 분명하게 얘기하

세요. 그게 마음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제가 말씀…….

○金炯奎 委員; 네, 答辯하세요.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지금 金委員님 말씀하신 事項은, 市長의 마음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우선 제쳐두겠습니다. 다만, 지금 金委員님 말씀하신 事項은 人事의 客觀性을 보다 더 增進해 달라 라고 하는 市政에 대한 간곡하신 질책으로 알고 저희들 行政을 해 나가는 데 龜鑑으로 삼겠습니다.

○金炯奎 委員; 우리 室長께서 물론 이런 表現을 안 하셔도 그렇게 알아들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附言하고 싶은 것은 서울特別市는 명백한 地方政府입니다. 아까도 우리 全潤杓 委員님이나 朴別根 委員께서 模範택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交通部 指示 아닙니까? 그러면 地方政府로서 意志를 가져라 이런 얘깁니다. 地方政府에 맞지 않는 中央政府의 指示 같은 것 排擊할 줄 아는 이런 市長이 되고 이런 企劃管理室長이 되고 이런 局長이 되라 이런 얘기에요. 무슨 공차율이 있는데……. 그 왜 辨明합니까? 그러한 發想이 바로 3月 8日에 赴任한 서울市長의 發想으로서 나타난 것이 市政刷新企劃團이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식의 行政은 옛날 5共에서 했었던, 維新政權에서 했었던 이런 發想입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崔明鎭 委員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市政企劃團이 없어서 그간에 市政刷新이 안 됐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法政刷新을 해야 돼요. 市政刷新이 아니라 庶政刷新을 해야 돼요. 그게 지금 現政府의 3大課業 아닙니까? 그런데 庶政을 사탕발림해서 市政으로 刷新하겠다? 바로 이 企劃團을 만드는, 3月 8日에 赴任해

서 3月 10日에 發足시키는 이러한 問題가 바로 市政刷新의 問題다 이거예요. 李元鐘 市長은 단연코 이런 데 責任을 느껴야 됩니다. 이런 눈가림하는 市政, 하여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金永根 社長의 의원면직이 後進을 위해서 勇退했다고 하는 그런 答辯에 杞憂를 느끼면서 그분의 退任을 매우 섭섭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님!」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네, 崔明鎭 委員님.

○崔明鎭 委員; 이어서 停會될 그 時間에 答辯을 꼭 마련해서 續開된 本 委員會에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級 이상 서울市 公務員, 各 區의 區廳長, 本廳의 局長, 서울市 投資機關 社長 또 理事長, 病院長 이 사람들의 出身地域과 姓名, 職級, 이 名單을 바로 후에 續開될 會議에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10分間 停會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5時 15分 會議中止)

(15時 32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尙東; 續開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崔明鎭 委員이 質疑한 內容에 대해서 企劃管理室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崔明鎭 委員님께서 3級이상 서울市 各 職種別 公務員 名單을 職級과 기타 여러 人的事項을 記

載해서 즉시 좀 내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所管 人事課에다 즉시 連絡을 해 본 결과 지금 현재로서는 名單이 만들어져 있는 狀況이, 資料가 지금은 없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時間 안으로, 가급적이면 오늘로도 해 보겠습니다만, 하되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몇 가지 人的狀況은 저희들이 資料를 管理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崔明鎭 委員; 本委員이 停會하기 전에 要請했던 이런 問題들은 變化와 改革을 標榜하는 文民時代に 걸맞지 않는 人事不條理나 잘못된 人事慣行이, 또 잘못된 人事原則이 이것을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市政刷新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問題부터, 人事는 萬事이기 때문에 이런 問題부터 고쳐야 되겠다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 資料를 要請했던 것입니다. 그 資料를 提供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理由와 또 納得하기 어려운 말로써 本委員한테 이 資料가 계속 안 오고 있는데, 조속히 住民登錄番號만이라도 적어서 提出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곁들여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말씀하세요.

○崔明鎭 委員; 앞서 여러 委員님들께서 指摘을 하셨습니다만 變化와 改革의 새 時代를 創造하기 위해서는 이 市政刷新, 거기에서 특히 人事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業務改善에 보면 人事問題는 言及이 안 되어 있습니다. 公務員들이, 서울市政을 이끌 수 있는 가장 基礎的이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개인을 희생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公務員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公務員들이 人事가 公正하고 客

觀的인 基準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士氣가 올라가고 業務推進이나, 業務改善이나 그런 데에서 共感할 수 있는 일은 向上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人事가 納得할 수 없는 基準과 原則과 그런 것에 의해서 人事가 이루어져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80年度初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軍 出身으로 해서 서울시에 현재 뭐 事務官級으로 들어왔던 분들, 현재 서울시 課長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합니다만 이런 분들이 갑자기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既存 公務員 社會에 異質感이나 違和感을 造成하고, 성심껏 또는 자기의 모든 있는 能力을 發揮해서 열심히 勤務했던 많은 公務員들이 人事積滯에 굉장히 고생했던 경우를 本委員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런 관계 때문에 정당하게 進級이 잘 되어야 될 公務員들이 進級이 안 되고 下位職에서 머무르고 停年을 앞두고 고민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變化와 改革의 새 時代에는 이런 잘못된 人事라든지 그런 것을, 지나간 일입니다만 전부 改善해야 됩니다. 잘못된, 人事가 萬事인데 이런 人事를 改善하거나 고치지 않고 아무리 입으로 行政刷新, 市政刷新 떠들어 봐야 下位職 公務員들이라든지 一般 公務員들이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市政에 관해서 서울市長을 補佐하며 市政에 대한 合理的인 責任을 지고 있는 企劃管理室長님께서서는 이 人事行政에 관해서 누구나 다 納得하고 共感이 갈 수 있는 그런 人事基準이나 根據, 이 根本的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刷新方案을 갖고 계신지 좀 진솔한 答辯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어 드리면 消防公務員도 서울시에서 합

니까, 人事를?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네, 市長님 傘下에서 하고 있습니다.

○崔明鎭 委員; 消防公務員의 昇進에 보니까 公開競爭昇進은 警衛級, 一般職 7級입니다. 警衛級까지만 公開競爭昇進이 이루어지고 그 이상 昇進하려면 그런 公開競爭昇進이 없이 納得할 수 없는 그런 基準과 原則에 의해서 昇級者가 決定이 되어서 消防公務員들이 굉장히 士氣가 低下되고 勤務할 의욕이 나지 않는다는 이런 陳情을 本委員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실제적으로 刷新해야 될 부분은 內部的으로 우선 이렇게 이런 問題에 있어서 刷新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答辯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崔明鎭 委員님께서 저희들 人事業務에 관한 基準을 통해서 叱正을 해 주신 것을 달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다만, 人事는 業務의 能率과 人事對象 즉, 公務員에 대한 士氣 두 가지 다 만족할 때가 가장 잘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人事는 어디까지나 같이 勤務하고 있는 同僚職員이나 혹은 上司나 여기에서 그 該當者의 能力과 人性에 따라서 人事가 되고 있으나, 이것은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不變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엄격한 基準은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崔明鎭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人事를 할 때에는 최대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人事를, 人事行政을 해야 할, 혹은 그 職員에 대한 그 非難의 소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消防職에 대한 昇級, 昇進은 지금 제가 어떠한 要領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은 消防本部로 하여금 제가 알

아서 다시 書面으로 그 基準을 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崔明鎭 委員; 室長님께서 答辯하신 內容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答辯하신 것 같습니다.

公正하고 客觀的인 基準과 原則에 의해서 昇進이라든지 轉補 또는 左遷이 이루어지면 公務員 社會에서 보다 더 높은 士氣를 갖고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再論을 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原則과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客觀的인 檢證이 필요한 人事委員會 構成이 누구나 共感할 수 있게 첫째 構成이 되어야 됩니다. 人事委員會 構成이 되어 있지요, 室長님?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네.

○崔明鎭 委員; 그러면 그 人事委員會가 실질적인 權限과 責任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造成을 해 주고, 外部의 간섭이 전혀 없이. 그리고 그 人事委員會 構成이 公務員들의 共感を 받을 수 있게 構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 人事委員會 構成이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런 機能과 役割을 受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바대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部分에 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터치는 전혀없이 教科書的인 原論만 가지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좀더 進展된 答辯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지금.....

○崔明鎭 委員; 왜 本委員이 이 人事問題를 深度있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서 우리 金炯奎 委員님도 指摘했지만 서울市의 投資機關인 都市開發公社 社長에 大邱에서까지 초빙해서 앉혀 왔다, 서울市民들의 자존심이 지금 굉장히 상해 있습니다. 公務員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여기 계신 委員님들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또 아까 앞서 室長님의 答辯中에 後進을 위한 勇退,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本委員이 파악한 바로는 이번에 副市長으로 昇進한 분은 1級에서 4年 몇 個月間을 기다렸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級에서 4年 6個月인가가 昇進이 안되고 있으면 後進을 위해서 반드시 勇退를 내려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昇進이 되고 누구든지 共感할 수 있는 분은 昇進이 안 되고 이렇게 人事가 이루어져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는 市政에 관해서 全般的으로 補佐를 하시니까 앞으로 그 실질적인 權限이 없으시더라도 建議하겠더라든지 확실한, 구체적인 答辯, 이것 좀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崔明鎭 委員님 지금 좋은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서울시 行政의 能率과 市民의 福祉增進, 그리고 저희들 市職員의 士氣昂揚 側面에서 崔明鎭 委員님이 저희들 서울시 幹部들에 대한 신랄한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만 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崔委員의 質疑內容에 대해서 室長님께서 충분히 理解를 하셨으니까, 일단 그 人事問題에 대한 것은 客觀性있게 市長에게 建議를 좀..... 우리 財經委에서 論議되었던 內容에 대한 것을 소상히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尙東; 다른 委員님 質疑 없으십니까?

(「하나만.....」 하는 委員 있음)

네, 李聲九 委員님.

간단히 해 주시고 企劃管理室 業務에 대한 質疑는 마치도

록 하지요.

더 하실래요? 되도록이면 간단히 해 주세요. 중복되는 質疑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明鎭 委員; 아니, 委員長님께서서는 委員님들이 時間이 촉박해서 質疑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與件造成을 하셔서서는 안됩니다.

○委員長 朴尙東; 그래요? 그렇게 보입니까?

○崔明鎭 委員; 네.

○委員長 朴尙東; 알았습니다.

○李聲九 委員; 李聲九 委員입니다.

두 분 얘기 참작해서 알맞게 하겠습니다.

아까 企劃室 業務報告 9페이지에 600年事業 推進의 제일 마지막 部分에 契機事業中인데 尖端情報化業務團地 造成 해서 아마 新聞에 보기로는 10餘萬坪 이상의 인테리젠트빌딩 團地를 造成한다는 얘기를 얼핏 본 일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큰 團地를 어디다가 어떻게 만들고, 만드는 方法은 民間 베이스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市 投資로 하는 것인지 한번 일러주시기 바라고, 거기 곁들여서 하나 더 600年事業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짚어보고 가고 싶은 얘긴데, 서울市廳 新築問題는 600年事業하고는 聯關이 없는지, 같이 한 번 얘기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市政研究官이 答辯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聲九委員; 그러세요.

○市政研究官 康泓彬; 市政研究官이 答辯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말씀하신 市廳舍 新築 내지는 移轉에 관한 事項도 600年事業 마지막에 있었던 21세기 준비, 여기

의 一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推進이 되고 있는데, 尖端情報團地도 그렇고 市廳舍建立도 그렇고 저희 目標은 95년까지 事業化 計劃을 만드는 데까지 있습니다, 着工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3年間 細部計劃을 樹立하고 필요한 位置를 確保를 하는 目標로 하고 있는데, 尖端情報團地는 간략하게 說明을 드리면, 저희가 分析해 본 바로는 2001년까지 推算을 했을 때 저희가 필요로 하는 業務用空間의 需要가 보통 市에서 매년 供給되는 業務用 빌딩 供給量을 빼고도 상당部分의 새로운 業務團地의 造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業務團地의 경우에는 서울이 東京이라든가 上海라든가 하는 새로운 東北亞 經濟國의 都市들하고 競爭을 해야 되기 때문에 國際的인 機能이 상당히 중요한 業務團地가 되겠는데, 그러한 業務團地가 제대로 機能하기 위해서는 24時間 稼動할 수 있는 體制와 그 情報와 受信, 發信의 基地가 그 要諦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作業은 이러한 空間需要와 필요한 機能分析, 그 다음에 位置選定, 事業化 計劃 이것은 이제 올해 만들고 있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情報化團地의 位置를 여기다 하고 確定을 할 段階는 아닙니다.

몇 가지 敷地가 여러 가지 交通條件이나 地價 狀況 또는 앞으로 新空港이라든가開發趨勢에 맞춰서 상당히 유망한 자리가 있다 하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컨대 蘭芝島 一帶라든가 혹은 龍山 一帶라든가 比較檢討가 되고 있는데 확실한 立地의 選定은 이러한 研究와 分析이 끝난 다음에 公總會라든가 여러 가지 形態의 論議를 거쳐서 그것이 確定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事業方式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이러한 構想下에서 計劃을 짜고 있습니다. 이 尖端情報團地의 모델이 東京의 현재 臨海都市 副都心 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요코하마 같은 데 例가 있는데 事業의 性格上 基盤施設部分은 公共部分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대부분의 여타 部分은 民間하고 같이 合同으로 해서 開發을 해야 될 部分입니다.

그래서 東京 같은 경우에는 都 政府와 또 國家와 民間 企業이 合資해서 그 텔레포트開發株式會社를 만들어서 運營을 하는데 우리 경우도 市에서 할 部分, 中央政府에서 할 部分, 民間部分이 들어올 部分이 아마 섞여져서 第3섹터에 의한 開發로 推進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聲九 委員; 그러면 아예 그 團地만 따로 造成한다는 것입니까? 이리 저리 전체에 빌딩이 나뉜 것들을 連繫시킨다는 뜻이에요?

○市政研究官 康泓彬; 지금까지 分析된 바로는 상당 規模의 業務機能 또 그것을 支援하기 위한 컨벤션센터라든가 이런 支援機能이 한 자리에 있고 그 가운데 情報基地가 있어야 전부가 랜이라고 컴퓨터끼리 서로 連結된 情報通信網이 비싼 돈 안 들이더라도 짧은 거리에서 密集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基本的으로는 한 군데에 모으는 것이 경제적이다 하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李聲九 委員; 面積이 대략 規模라도 나오니까?

○市政研究官 康泓彬; 지금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저희 研究가 거기까지 進行이 안되어 있는데, 日本 事例를 보면 한 30萬坪..... 그런데 日本 경우는 住居機能까지 포함된 그런 副都心입니다.

그리고 市 廳舍 경우도 마찬가지로인데 95年, 아시는 대로

法院團地가 이제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그 時點 前까지는 市廳에 대해서 移轉을 한다든지 혹은 現位置에 짓는다든지 하는 政策 판단을 확실하게 가지고 事業計劃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어야 그 다음 與件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措置를 하겠다 싶어서 역시 올해에는 필요한 機能과 그 空間 需要 또 역시 이제 議會하고 같이 껴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機能 配分,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對象 位置가 현재 몇 군데가 있는지, 이곳의 長短點 比較, 財源調達方案 이런 것들을 포함한 1次 妥當性 研究가 올해 하는 部分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들어가면 그 比較 對象이 된 그 立地를 놓고서 여러 가지 形態의 論議를 거쳐서 이제 確定을 하고 그 候補地를 對象으로 해서 豫備設計를 하면서 좀더 구체화해서 進行하는 豫定으로 있습니다.

○李聲九 委員; 네, 잘 알겠고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本委員이 前 第60回 臨時會에서도 市廳 廳舍 얘기는 잠깐 말씀드린 例가 있습니다만 市廳 좀 번듯하게 짓고 싶은 마음이 저도 그렇고 더러 물어 보니까 다 한 번 했으면 합니다.

그런 뜻으로 아무튼 600年事業의 가장 큰 프로젝트로 市廳 廳舍가 오히려 하나 됐으면 싶고, 그 方法은 그 모양이 子孫萬代에 자랑할 수 있고 21세기의 太平洋時代를 主導하는 서울市를 象徵할 수 있는 멋들어진 市廳 하나 이 좁은 데서 構想하시지 말고 龍山8軍, 저런 넓은 데 가서 시원하게 한 번 設計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칩니다.

○委員長 朴尙東; 다른 委員.....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중복된 質疑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蘇中天 委員; 네, 알겠습니다.

市政刷新企劃團에 法務擔當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法務擔當官한테 제가 質疑를 좀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再開發事業을 施行하려고 하는 곳하고 하고 있는 곳이 한 149곳인가 그렇다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큰 問題가 두 가지가 지금 부각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鑑定을 하는데 그 집이 있는 狀態에서는 안 됩니다. 다 헐어낸 裸地 狀態에서 된다 그런 얘데요, 裸地에서. 그것하고, 두번째는 國有地는 鑑定을 하고 나서 60日 이내에 現金으로 償還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法에, 上位法에. 그 다음에 市有地는 5年 償還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再開發協會의 任員들과하고 李相培 市長하고 面談을 했습니다. 그래서 李相培 市長이 "3年 거치 10年 償還으로 할 수 있도록 法을 改正 建議하겠다" 그랬다는데 法務擔當官들어본 사실 있습니까, 이 말?

○法務擔當官 金炅圭; 아직까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 관계는 제가 確認을 해서 개별적으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蘇中天 委員; 아니, 서울시에서 法을 擔當하는.....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市政刷新企劃團에 法務擔當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149곳에서 지금 懸案으로 걸려서 아마도 이게..... 그런데 지금 이것을 못 들어 봤다고 하면 큰 問題입니다.

실지 그렇습니다. 지금 以前에 다른 委員님들이 다 指摘했습니다만 지금 이것 때문에 事業이 안 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이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蘇中天 委員; 네.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이것은 우선 國有地의 賣却處理에

관한 事項하고 再開發事業의 促進問題, 두 가지가 結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따라서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法務擔當官室까지 協議는 안 온 것 같습니다. 協議는 안 왔는데, 그럼 안 오고, 다시 말하면 法規에 관련된 事項인지 단순한 行政指針에 관한 것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한 번 促求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法規의 改正 등 같으면 반드시 저희들 法務擔當官室로 와야 되겠고, 그렇지 아니하면 안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은 促求해서 빠른 時日內에, 市長님께서 公約까지 하셨다면 實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蘇中天 委員; 아니, 法規하고 問題된 것입니다.

財務部 國有財産法施行令 第40條第1項인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枝葉的인 얘기입니다만 지금 倉前洞 같은 데는 이것 때문에 住民들 하고..... 그 國有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裸垆地에서 鑑定을 하려고 그러니까 집을 헐면 이것 집 뺏기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狀態에서 鑑定이 나올 텐데 안 되고 있어요. 그것하고, 現金償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각 서울市에 再開發하려고 하는 데서 施工會社에서 融資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年 16%라고 합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地域은.

그러면 대단히 높은 그런 利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法務擔當官이 市政刷新하면서 建議할 事項을 해서 서울의 그 再開發하려고 하는 곳이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네, 감사합니다.

○蘇中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네, 金炯奎 委員님.

○金炯奎 委員; 金炯奎 委員입니다.

그간에 第59回 臨時會에서 우리 企劃管理室에서 作成한 半期 地方財政計劃이 있습니다. 本委員이 이것을 다소 檢討는 해 보았습니다만 地方財政法 第16條에 의한 所定된 法定計劃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內容을 보니까 本委員이 생각 하는, 생각에 따르는 그런 計劃과 물론 相異하다고 一見 봐 집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強調 하고 싶은 것은 5個年 財政計劃이라고 한다면 좀더 豫見할 수 있는 실질적인 意味의 財政計劃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이 內容을 보니까 정말 추상적이고, 어디 學生이 作文하는 그런 立場의 이런 計劃이 아니냐, 너무 혹평한 것 같습니다만 그런 感이 듭니다. 그래서 이 問題를 제가 다시 더욱 더 檢討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우리市 企劃管理室에서는 이것을 深思熟考하게 다시 檢討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정말 舊 政權下의 市長이고 지금은 文民政權의 市長이라고 하는 立場, 또 市政을 刷新 하겠다고 하는 그런 立場에서 좀더 합리적이고 구체화되는, 5年을 豫見하는 財政計劃이 이렇게 추상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檢討한 것을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아마 우리 委員長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또 다음 議事日程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財政計劃上에 서울600年事業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市政刷新企劃團에 겹쳐서 報告된 內容은 事業名稱이 서울, 새로운 誕生 이렇게 되어 있

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울600年事業이라고 하는 用語는 되도록이면 使用하지 말아야 되겠고, 또 600年事業이라고 하는, 그 600年이라고 하는 그 어떤 年數에 대한, 定都라고 하는 그 意味가 퇴색하는 것으로 보서는 아마 600年事業이 지금 實踐에 옮기다 보니까 좀 不合理해서 서울, 새로운 탄생 이렇게 事業名稱이 바뀌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 600年이라고 하는 60甲子の 열배다 하는 이 概念이 아마 퇴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內容에 대해서 좀더 소상한 動機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이 600年事業..... 서울, 새로운 탄생 事業으로 보서는 지금 記念事業에서 무슨 祝祭行事 이런 意味의 行事가 可視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진정한 意味의 60甲子の 10배가 되는 그런 長久한 定都的인 그런 立場이라고 본다면 이런 祝祭라기보다도 정말 알찬 이런 事業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600年 事業 推進이라고 하는 問題와 中期 地方財政計劃上에 併記되어 있는 事項하고 전혀 聯關이 없어요.

아울러서 더욱 더 우리가 지금 市政刷新이라고 하는 立場에서 李元鐘 市長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交通問題 이것 어떻게든지 내가 解決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交通問題에 대해서 解決하겠다고 하는 意志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地方財政計劃에. 예를 들어서 몇 期까지 몇 Km를 地下鐵을 만들겠다, 그리고 總 所要資金은 5,991億원이 들어간다. 지금 計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計劃이 文字의 나열에 불과하지, 며칠 前에 新聞에서 發表된 바와 같이 지금 6,528億원인지 弗인지 이것이 지금 財源이 고갈되어서 난망하다, 이런 報道가 있을 때

당연히 우리 市 當局으로서는 市民이 안심하게 交通의 疏通 對策이 계획적으로 됐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그 解明記事 정도는 나올 수 있는, 所信있는 그런 計劃을 가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市에서는 묵묵부답이에요. 이런 虛構性 있는, 잘 보이기 위한 이런 計劃은 애당초 안하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이런 意味에서 本委員이 다음 會期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中期 地方財政計劃에 대해서는 좀더 深度있는 제가 質疑도 할 것이며, 그런 答辯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時間關係上 간단히 促求와 그 虛構性에 대해서 檢討해 보라는 말씀을 質疑로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대단히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金炯奎 委員이 中長期 財政計劃의 內容에 대한 再檢討에 대한 質疑에 대해서 室長님께서 關係官들과 잘 協議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 時間을 두시고 충분히 納得이 갈 수 있도록 答辯을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네.

○委員長 朴尙東; 오늘 이상으로 企劃管理室 所管 業務에 관한 質疑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財務局 所管 業務에 관한 質疑에 앞서 잠시 停會한 후에 續開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6時 05分 會議中止)

(16時 33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尙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續開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2. 財務局所管業務에關한質疑

○委員長 朴尙東; 議事日程 第2項 財務局 所管 業務에 關한 質疑를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質疑에 앞서 財務局長이 새로 監査官에서 우리 財務局長으로 赴任하셨습니다. 그래서 財務局長의 新任人事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人事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文鍾; 존경하는 朴尙東 委員長님과 委員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방금 委員長님으로부터 소개받은 財務局長 金文鍾입니다.

어제 本會議에서 人事드린 바와 같이 3月 18日字 人事發令에 의해서 監査官에서 자리를 옮겨온 지 하루밖에 안 됐습니다. 發令 즉시 委員님 여러분을 일일이 찾아 뵈었어야 道理이겠습니까만 景況中이라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人事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너그러이 理解를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여러분들의 高見과 훌륭하신 指導를 받을 수 있는 財務行政의 重責을 맞게 된 것을 저로서는 매우 영광스러운 機會로 생각합니다만 서울시의 歲入豫算과 財産管理 그리고 會計業務를 總括하는 財務局 所管 業務는 다른 어느 分野 業務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때에 저의 어깨가 매우 무거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의 熱과 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姿勢로 職務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所屬 職員들의 經驗과 能力을 최대한으로 發揮할 수 있도록 部下職員들의 指導 監督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所管 業務를 推進해 나감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委員님들의 關心事項에 대해서는 委員님들과 미리 기탄없이 協議를 드리고 指導를 받겠습니다. 委員長님과 委員님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愛情으로 指導鞭撻과 忠告와 激勵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 올리면서 저의 첫 人事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尙東; 수고했습니다.

財務局 課長님들은 한 분만 지금 아마 昇進되어서 發令狀 받으러 가셨는데, 當面業務報告에 대한 油印物 準備 안했어요?

(「지난번 報告드린 이후에 특별한 變更事項이.....」 하는 關係公務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지난번 報告는 93年度 業務報告를 했는데 當面業務報告, 新任局長이 왔고 했으면 油印物을 準備해서 정중하게 委員들에 대한..... 委員들이 質疑할 수 있는 그러한 內容의 業務報告를 해 주셔야지, 企劃管理室 같은 경우는 지난번 93年度 業務報告를 했지만 當面業務報告라고 이렇게 油印物을 가지고 와서 정중히 報告를 해서 質疑와 答辯이 있었다구요. 財務局은 뭘 한 거예요, 지금. 이것은 議會를 輕視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協議過程에서 質疑만 準備해 왔지

특별히 저희가 지금 當面하고 있는 事項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關係 公務員 있음)

도대체 公務員들의 基本 思考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뭐냐하면, 이것 基本的으로 常任委가 열리면, 財務局 所管 業務 報告와 質疑와 答辯을 한다고 그랬으면 나올 때마다 當面 業務報告에 대한 것은 報告를 하고 그 다음에 質疑를 받고 答辯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러한 태도가 어디 있어요, 이런 태도가? 財務局長,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은 議會를 輕視하는 거예요. 財經委員會를 輕視하는 거예요, 뭐예요?

○財務局長 金文鍾; 局長으로서 전적으로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처 그것을 챙기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저의 責任으로 질책을 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욱 이것을 거울 삼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尙東; 新任局長이 發令받은 지 그래도 24時間이 지났고 그렇게 되었으면 基本的으로 新任局長이 왔으면 新任局長으로서 93年度 業務報告에 대한 것을 브리핑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거기에서 質疑와 答辯을 할 때 當面 業務報告에 대한 것은 뭔가 하고 油印物을 만들어서 정중히 委員들한테 이것을 配付해 드리고, 그 다음에 質疑를 받고 答辯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財務局長 金文鍾;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朴尙東; 다음에 이런 問題에 대해서 注意 좀 하십시오, 모두.

○財務局長 金文鍾;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委員님들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를 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新任局長이 처음 赴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양해를 해 주면서 93年度 財務局에 대한 業務報告를 지난번 듣고 質疑와 答辯이 있었습시다만, 새로 온 局長이 또 赴任했고 새 市長이 또 赴任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財務局에 대한 業務에 관하여 委員 여러분께서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明鎭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明鎭 委員; 서울시 監査官으로 在職하시면서 財務局 業務의 改善해야 될 事項, 또 刷新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變化와 改革을 부르짖는 文民時代, 新韓國 創造의 時代를 맞이해서 財務局長으로서 千百萬 서울시民의 歲入과 歲出을, 서울시政의 歲入과 歲出을 主管하는 財務局長으로서 새時代에 걸맞는 刷新方案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文鍾; 答辯 올리겠습니다.

委員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목소리가 아직 풀리지 않은 狀態가 되어서 이런 탁한 목소리로 말씀을 올리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을 맡은 公職者들에게 要求가 되는 것은 맡은 일에 忠誠을 다하는 것이 基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分野의 일이든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의 精神과 姿勢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財務局에서는 그동안 前任 局長을 비롯한 많은 職員들이 制度와 運營面에서 꾸준히 改善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變化와 改革의 새

時代를 맞이해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正直하고 公正하고 깨끗한 財務行政이 될 수 있도록 모든 業務를 새로 出發한다는 각오로써 稅政이나 會計나 財産管理 業務 全般에 걸쳐서 業務 하나하나를, 單位業務 하나 하나를 다시 차근차근히 되돌아보고 點檢을 해 가면서 制度나 또 運營面에서 좀더 改善할餘地가 없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課題를 發掘하려고 그러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일 하나하나라도 市民들에게는 便利하고 또 市政 施策 遂行에는 차질이 없는 方向으로 改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를 포함한 財務局 所屬 全職員이 무엇보다도 새롭게 거듭 태어난다는 自己革新으로 저희들의 名譽와 자존심을 걸고서 匠人情神으로 정성껏 하나하나 일을 改善해 나갈 것을 여러 委員님들께 엄숙히 다짐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일에는 제가 지금부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委員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아낌없는 指導와 助言을 해주신다면 이 일이 더 빨리 促進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監査官을 지냈습니다만 財務局所管 業務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어떤 方向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答辯드리기는 조금 제가 좀 어렵고요, 時間을 좀 주시면 최대한 빠른 時日內에 저희들이 改善方案을 잡아나가서 별도로 報告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崔明鎭 委員; 네, 監査官으로 在職하시면서 財務局 會計課 業務의 改善해야 될 점은 뭐고 制度上이나 運營上에 무슨 점이 잘못되어 있다, 또는 財産管理 또는 稅政 이런 면에 있어서 改善해야 될 점은 무엇이었다, 또 뭐가 잘못 되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잘 파악하고 계실 것인데 전혀

구체적인 答辯은 없고 그냥 추상적이고 美辭麗句로 얼버무리는 答辯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른 部署에서 財務局으로 오셨으면 本委員이 이런 質問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서울市政의 脈에 대해서, 核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낱낱이 현미경 보듯이 잘 알고 계시는 監査官께서 이렇게 얼버무린 答辯이 우리 財務局에서 나왔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面을 끄집어 내서 答辯을 다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財務局長 金文鍾; 質疑하신 崔委員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그 동안에, 지난해 議會에서 委員님들께서 指摘해 주신 事項이라든지 또 市民들로부터 여러 가지 民願이 있었던 事項들을 다 끄집어 내놓고 새로 出發하는 기분으로 우리 全職員들과 함께 하나 하나 釐正해보겠습니다. 사실 실제로 꼭 어느 分野가 어느 점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잘못된 것이, 改善할 것이 사실은 많을 것입니다. 많을 것이고, 보는 視角에 따라서, 市民의 편에서도 많고 또 우리 公職者 相互間에, 部署間에 業務 協조 面에서도 改善할 餘地가 많이 있고, 또 法令 改善事項도 있는 것이고 이래서 제가 천상 지금 赴任初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崔明鎭 委員; 局長께서 조금 전에 答辯하신, 赴任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양해할 수 있는 部分이 따로 있습니다. 本委員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른 部署라면 모르는데 監査室에서 오셨습니다, 監査官으로 계시다가. 왜 本委員이 이 점을 強調를 하느냐 하면 서울시 監査官室, 서울시 監査가 監査 본래의 機能을 제대로 遂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委員님들이指摘한 무슨事項에 대해서問題가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 봉합하느냐, 미봉하느냐 이런 데에監査가主眼點이 되어서進行되어 왔다는 것을本委員은 여러가지證據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姿勢를 가지고財務局長을 하시게 된다면서울市의財務局業務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특히變化와改革의 새時代에는 맞지 않다, 이런생각을本委員은 분명히 하게 됩니다. 이것은本委員 생각뿐만이 아니고서울市民도 아마共感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本委員이 두 번 세 번指摘을 했습니다만監査官室에 제시면서財務局의 어떤部分이 잘못되었고,改善해야 될점이 무엇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것에 관해서 한 마디도 이財務經濟委員會에서 밝힐 수 없다는 것, 그러면監査官으로在職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적이 의심이 되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姿勢로財務局長 하시면서울市 살림인데 살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財務局長 金文鍾; 저, 崔委員님…….

○崔明鎭 委員; 이것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出發이. 美辭麗句로 얼버무리는 答辯으로 進行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는 美辭麗句로 얼버무리거나 答辯을 回避하려는 그런 答辯은 容納하지 않는 場所입니다.

진솔된姿勢로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이라도指摘을 하면서 答辯해 보십시오. 이런姿勢가 새時代에 要求하는姿勢입니다, 公務員들의. 文字 써 가지고 좋은 말만 갖다 붙이는 것이 새時代가 要求하는 公務員의姿勢가 아니에요.

○財務局長 金文鍾; 委員님, 그 稅政……. 稅務行政 部分에도 그렇고 또 會計管理 部分에도 그렇고 또 財産管理面에서도

여러 가지 節次나 運營面에서 市民들에게 까다롭다, 또 잘 알려지지 않고 非公開로 市民이 알 수 없는 狀態에서 處理가 된다 하는 경우가, 구체적인 例는 지금 당장은 생각은 안 납니다만 部分的으로 많이 指摘이 됐습니다. 그리고 傘下機關인 區廳에도 主 系統業務가 있는데 이러한 部分에 대해서 이번에 과거의 監査時에 指摘된 事項, 監査院 監査에서 指摘된 事項, 市議員님들께서 指摘을 해 주신 事項, 또 市民들께서 民願을 提起해 주신 事項 이런 것을 전부 係單位로, 單位業務 單位로 市民들의 不便함을 주었던 事項 또 指摘을 받았던 事項 이것을 전부 까발려 가지고 部分別로 지금부터 整理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이렇게 해 볼 작정입니다. 조금 時間을 주십시오.

○崔明鎭 委員; 우리 會議 벽두에 委員長님도 指摘을 하셨습니까 다만 항상 이 精神姿勢, 會議에 임하는 精神姿勢, 그리고 서울市民을 代表하는 代辯者이고 서울市民의 아프고 가렵고 하는 점을 누구보다도 소상히 잘 알고 있는 議員님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하는 執行部の 태도가 不誠實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또는 納得할 수 없는 점이 있다, 그러면 一般市民들을 대할 때에 公務員들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서울市民의 代表인 서울市議員들한테 이 정도로 대하는데 도대체 一般市民들한테는 어떤 姿勢로 대하겠는가? 그것은 묻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도 잘 알 것으로 봅니다. 우리 委員長도 序頭에 指摘하셨습니다만 이런 基本的인 姿勢, 방금 局長께서도 答辯하셨지만 분명히 監査官으로 在職할 때 所管 業務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는 이런 姿勢를 가졌다면, 또는 알고 있는데도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는다면 이것 두 가지 다 問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事前準備 疏忽 關係, 이것은 變化와 改革을 指向하는 새 時代에 맞지 않는 姿勢입니다. 이런 姿勢부터 고쳐야만 그 다음에 財務局에 어떤 發展이 있을 수 있고, 서울市民에 奉仕하는, 새 時代에 맞는 財務局 公務員들의 勤務像이 나오는 것이지, 이런 일부부터 改善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말로만 그냥 美辭麗句 갖다 붙여서 우선 市民들의 눈을 가리고 糊塗하는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 특히 當 委員會에서 한마디 한마디 答辯하실 때는 監査官室에서는 그런 식으로 答辯을 했어도 통했는지 모르지만 當 委員會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진솔한 立場으로 돌아가셔서 솔직하게 答辯해 주세요. 모르시면 모르시고 알면 아는 것을 誠意껏 答辯해 주셔야지, 그냥 文字 써가면서 얼버무리는 그런 答辯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部分에 관해서 改善된 答辯을 들고 일단 本委員은 質疑 마치고겠습니다.

○財務局長 金文鍾; 崔委員님 대단히 참 죄송합니다.

우선 그 稅務分野에 있어서도 실제로 納稅者의 不便을 주는 일이 많다고 해서 그 동안 매년 改善을 지금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會計分野에 있어서도 入札問題라든지 또 契約過程에서, 또 代金支出 過程에서 가끔 서울시 事項이 아니라도 他 部處의 事例로서도 指摘되는 類型이 서울시라고 해서 지금까지 例外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誤解를 받을 수 있는 素地가 있었던 것도 있었고 또 財産管理 部分에 있어서도 替費地를 賣却한다든지 이러한 점에서 市民들이 잘 몰랐다, 또 過程에 不便을 느꼈다 하는 이러한 指摘들이 크고 작고 간에 상당수가 그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事項들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 온 것이 아니고 前任

局長 있을 때부터 하나하나 고쳐 나가고 있는 中이고 또 이제 새 時代를 맞이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 公職者들이, 절대 저희들이, 제가 美辭麗句를 쓰고 싶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새롭게 새 出發하는 기분으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市民의 편에 서서, 또 市政發展을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그러합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指摘되었던 事例를 저희들이 總整理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機會를 조금만 주십시오.

○委員長 朴尙東; 네, 朴別根 委員님.

○朴別根 委員; 朴別根입니다.

局長님, 新任 局長님으로 오셔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要約해서 말이지요. 서울市 總 豫算이 얼마나 남아 있고, 또 種類別로 預金을 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種類別 預金을 갖다가 상세히 다 적으시고, 또 借入을 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借入金額이 얼마이고, 歲入·歲出로 利子が 얼마 들어오고 利子が 얼마 나가는 것을 갖다가 92年度值 일절 다 書面으로 1週日內에 만들어서 우리 財務經濟委員會에 다 돌려주실 것을 갖다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서울市에서 工事に 대해서 隨意契約을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隨意契約이요. 工事 隨意契約이요. 工事 隨意契約에 대해서 契約書 內容, 入札 金額, 入札方法, 隨意契約 原因發生, 이러한 것을 다 뽑아서 저한테 좀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財務局에서 우리 財務經濟委員會를 갖다가 어떻게 보시는지는 몰라도 아무 答辯資料도 없이, 會議資料도 없이 이 자리에 參席했다는 것은 財務局長이나 課長님 여러분들이 좀 더 公務員 姿勢를 분명히, 확고하게 하시고 저희 財務經濟委

員會를 갖다 그렇게 멸시하는 그런 태도로 오늘 이러한 자리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점에서 깊이 반성하시고,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다 하면 차라리 저희들은 이會議에 안 나오는 것이 낫고, 課長님이나 局長님들이나 여러분들이 義務的으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 우리 議會가 필요 있습니까? 이런 會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반면에 여러분들 오늘 이런 會議資料도 없이 우리가 여기서 會議를 한다는 것도 委員님 여러분들이 時間浪費요 또 여러분들도 時間浪費니까 이 質疑한 答辯內容을 갖다 분명히 해 주시고, 委員長님께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資料도 없는 會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會議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崔丁植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丁植 委員; 우리 局長님께서 어제 發수를 받으시고 오늘 처음 相見禮에 本意건 本意가 아니건 간에 참 반갑고 祝賀의 자리가 되어야 될 텐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財務局 所管 業務에 관한 質疑에 앞서서 企劃管理室 業務報告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市政刷新企劃團이 發足を 했다고 하는 內容을 아십니까?

○財務局長 金文鍾; 네, 알고 있습니다.

○崔丁植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時代, 變化의 時代, 文民政府 하는 얘기가 우리 同僚委員 中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國政指標라든지 市政指標에 變化하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本委員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市政刷新企劃團이 構成이 되어서 보다 나은 市政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意志가, 委員長님을 위시해서 여러 同僚委員들께서도 指摘을 하셨습니다만서도 이것은 所管 業務에 대한 報告나 質疑의 자리가 아니고 오늘 財務局長님께서 오셔서 그냥 相見禮의 자리로 이렇게 變化한 데 대해서 慨歎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財務局 所管에서는 企劃管理室의 市政刷新企劃團 構成에 局長께서 參與를 하시는지, 課長님께서 參與하시는지?

○財務局長 金文鍾; 네, 主務課長들이 週 1회 내지 2회의 會議을 參席을 하고요. 또 係長들은 係長들대로 또 따로 會議을 하고 이래서 局單位로 改善課題를 매주 題目을, 아이템을 發掘을 해서 提出을 하고 또 거기서 檢討를 받도록 이렇게 初期段階에 지금 저희들도 함께 參與를 하고 있습니다.

○朴別根 委員; 아까 여러 그 委員님들께서도 指摘을 했습니다만 꼭.....

물론 市政이 發展을 하고 變化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만서도 꼭 政府나 어떤 政權의 그런 變化가 있을 때 마다 이런 龍頭蛇尾格인 이런 結果가 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만서도, 같은 우리 企劃管理室 部署에서 市政刷新이라고 하는 그런 業務報告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財務局에서는 會議資料 하나 내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本 局長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金文鍾; 대단히.....

○崔丁植 委員; 그러면서도 市政刷新을 하겠다고 하는 意志가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金文鍾; 조금 전에 朴委員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崔委員님께서 指摘해 주시는 事項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위원님들은 아직은 말씀은 안하셨지만 똑같은 생각을 가지신 것으로 저희들은 뼈아프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午後부터 事務室에 가서 資料를 조금 챙기다 보니까, 이런저런 제 핑계입니다만 여러 가지 事由로 아무런 資料를 準備없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적으로 저의 責任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을, 오늘을 契機로 해서 저희들이 깊이 반성을 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제가 앞장서서 責任지고 그렇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오늘만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朴別根 委員님께서 資料 要求하신 두 가지 事項에 대해서는 誠實하게 저희들이 만들어서 書面 提出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財務局長께서 정중히 사과를 했고, 그리고 또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執行部 태도는 대단히 나빴습니다. 나빴고, 이런 전혀 資料없는 市政質疑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委員들의 質疑를 받지 않고 이 정도로 오늘 散會할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다음 會議 때 財務局長께서 委員들의 소리를 들으셨으니까 委員들의 한 사람에게도 誤解가 없도록 충분한 資料를 準備하시고, 基本的인 報告를 했더라도 當面報告를 해야 할 內容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變化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오늘 財務局 所管 業務報告에 대한 質疑와 答辯은 마칠 생각입니다.

委員님들,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네, 오늘 財務局 所管 業務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財務局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第61回 서울特別市議會 臨時會 第1次 財務經濟委員會 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7時 05分 散會)

○出席委員

朴尙東 李聲九 蘇中天

全潤杓 柳準向 金順愛

朴別根 兪相根 崔丁植

崔明鎭 金炯奎

○專門委員

安錫洙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

室長 姜德基

市政研究官 康泓彬

法務擔當官 金炅圭

財務局

局長 金文鍾